

## 현대영어교육에 실린 준 실험연구 논문의 개관

류란\*, 황선유†

우송정보대학, 우송대학교

**Ryu, Ran & Hwang, Seon-Yoo. (2010). A review of quasi-experimental studies in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Educ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1(2), 20-39.**

This paper reviewed and analyzed quasi-experimental research conducted for the past 10 years in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Education*. Out of a total of 241 papers, 40 were selected from Volumes one to ten. These papers were then subject to investig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1) historical trends, (2) main topic areas, (3) language skills, and (4) research design. As for the research design, the paper includes analysis of subjects, proficiency levels of participants, data collection, and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e research interpretation.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research has been productive in the areas of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reading-related language learning, integrated language skills as well as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It is noticeable that most experimental research has targeted college students and was conducted for one semester. T-tests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statistical tool in interpreting experimental data. For future study of English education, it is recommended that experimental research be more sophisticated and balanced in terms of topic areas, language skills and research design us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s.

[quasi-experimental study/experimental study/research design/  
준 실험연구/실험연구/연구설계]

### I. 서론

현대영어교육학회는 1999년에 설립되어 이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대표적인 학회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영어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현대영어교육*의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1999년 창간호부터 2009년 10권3호까지 10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실험논문만을 선정하여 정리하고

---

\* 제 1 저자.

† 교신저자.

검토하였다. 이러한 실험연구 논문 분석을 통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연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현대영어교육의 논문투고규정에 의하면 게재되는 논문은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창의적 비판, 실험분석 및 새로운 교수법의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Gall, Borg와 Gall(1996)은 영어교육에서 연구를 하려는 의도나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연구의 네 가지 기능을 기술(description), 예측(prediction), 설명(explanation), 그리고 개선(improvement)으로 분류하였다. 기술이란 자연적, 사회적인 현상을 기술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예측은 교육 연구자들이 성공적인 학습을 예측하는 경우로 특정한 교육수준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연구이다. 교육연구에서는 현행 교육을 개선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연구의 의미가 직접, 간접으로 교육현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연구결과는 보다 나은 교육현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교육연구란 연구자나 교육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체계가 결국은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설명이란 교육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교육현상을 기술하거나 교육현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며 바람직한 개선책을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제까지의 영어교육 연구는 개선을 목적으로 수업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기술하며 설명하기에 힘쓰고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습을 예측하고 도와주려는 노력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게재된 논문 중 실험논문 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험이란 연구자가 독립변인을 적어도 하나 이상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화시키는 연구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실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실험설계라고 한다(박도순, 2002). 실험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실험에 사용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정하고 변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배열하여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험연구란 연구자가 교육 목적으로 설계한 교육적 처치를 단기간 또는 장기간 수업시간에 적용하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한 논문을 의미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교육연구는 피험자를 무작위로 선정하거나 배정하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분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준 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research)도 실험결과를 측정하는 시기와 부분적으로 측정대상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연구의 범주에 속하므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인 수업을 관찰하는 연구나 인터뷰를 통한 연구는 연구자의 실험처치가 없으며 연구자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발생적인 교육현장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논문으로 지난 10년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총

40편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 II. 실험논문에 대한 분류 방법

### 1. 대상논문 선정

본 연구는 현대영어교육학회지에 2000년 창간호부터 2009년 발간된 10권 총 25호에 게재된 241편의 논문 중 본 연구의 기준에 맞는 실험논문만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유형을 분류하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 연구에서 양적 혹은 질적 연구를 동시에 사용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도를 높인 논문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목표를 위해 자연발생적인 교실상황에서 설문 조사하거나 관찰한 연구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연구자가 목적을 가지고 처치를 한 경우에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모두 40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 2. 논문 분석 방법

선정된 논문을 우선 역사적으로 보기 위해 연도별 분석을 수행한 후 각 논문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해당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 기능별 분석과 연구 설계상의 분석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설계와 관련된 분석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자 구성, 실험연구 수행 시 수준별 분반 여부, 전체 연구기간 별로 나누었고 이와 더불어 실험연구의 연구자료를 수집한 형태와 연구결과를 의미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사용한 통계기법을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 III. 논문의 세부 분류

### 1. 연도별 분류

현대영어교육의 창간호는 2000년에 단행본 한 권으로 발행되었으며 이후 2001년 2권부터 2006년 7권까지는 연 2회, 2007년 8권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3회 발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 3회가 발행된 2007년 8권부터는 전체 논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각 호당 평균 논문 수도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평균 8.9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나 2007년 이후로는 평균 11.8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 각 호당 평균 논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행된

25호까지에 게재된 전체 논문은 총 241편이며 그 중에서 실험연구논문이 차지하는 빈도수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000년과 2002년에는 실험논문이 한편도 없었으나 이 두 해를 제외한 다른 연도에서는 실험논문이 계속 게재되고 있다. 가장 많았던 해는 10편이 게재된 2007년으로 동일 연도에 게재된 논문 중 실험논문이 26.3%를 차지했고 이는 전체 실험논문 중 25%에 해당한다. 2009년에도 22.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10년에 걸쳐 전체 평균 16.6%의 실험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어 영어교육에서 실험논문이 지속적으로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연도별 학회지 논문 현황

연도	발행호수	전체 논문 수	실험논문 수	전체논문에 대한 실험 논문 수(%)	실험논문 연도별 분포(%)
2000	1	12	0	0	0
2001	2	22	5	22.7	12.5
2002	2	19	0	0	0
2003	2	19	2	10.5	5
2004	2	23	1	4.3	2.5
2005	2	21	3	14.3	7.5
2006	2	19	4	21.1	10
2007	3	38	10	26.3	25
2008	3	36	6	16.7	15
2009	3	32	9	28.1	22.5

## 2. 주제별 분류

대상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표 2 및 표 3과 같이 전반적인 교수법과 기능별 교수법, 학습자 변인에 속하는 학습책략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  
주제별 분류

분류주제	연구주제	
교수법	전반적교수법	CALL, 이동수업, 과제중심통합수업, 몰입프로그램,
	기능별교수법	다독프로그램, 추론기능지도, 암시적/ 명시적 문법교육,
학습법	시험경험, 어휘학습책략, 질문노트, 문맥사용능력,	
학습책략	인터넷사용능력, 메모하기 전략	

표 3  
주제별 분류 논문 수

분류주제	논문 편수		
교수법	전반적교수법	6(15%)	
	인터넷매체사용	10(25%)	
	읽기	6(15%)	
	듣기, 말하기	2(5%)	
	기능별교수법	쓰기	3(7.5%)
	어휘	4(10%)	
	문법	4(10%)	
학습법, 학습책략	5(12.5%)		

교수법이란 접근법(approach)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데(Harmer, 2001) 여기에서 말하는 접근법이란 언어교육의 원리나 언어교육을 실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언어와 언어학습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Richards & Rogers, 1986). 본 논문에서는 교수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인 교수법은 언어의 특정 기능을 목표로 한 교수법이라기 보다는 통합적인 언어기능을 목표로 한 교수법이고 기능별 교수법은 특정 언어기능에 대한 교수방법을 연구 설계한 경우를 말한다. 한편, 학습책략은 학습자 변인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교수자나 동료에게서 효과적인 학습책략을 배운 후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신의 학습책략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 Richard-Amato(2003)가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반복 과정 중에 자발적으로 학습책략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게 되면 학습의 자율성(autonomy)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책략은 학습자 변인으로 분류되며 영어교육에서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언어의 전반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 언어의 통합적인 기능을 다루는 전반적인 교수법에 속하는 논문으로는 중학생들의 이동수업에 관한 논문(이화자, 정정옥, 2005)과 초등학교에서 과제중심의 통합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Kyu-Hwa Kim(2008) 등 6편(15%)의 논문이 이에 포함된다. 맹은경(2007)의 논문은 대상자가 학생이 아닌 교사로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지만 단기영어몰입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교수법으로 분류하였다. 전반적인 교수법 논문 중에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수업에 관한 논문이 다수인 관계로 이를 따로 분석하였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버상의 영어교육 효과를 분석한 논문(Sungryong Hong, 2006),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한 교양영어 수업(차미양, 2006), 온라인상의 SchMOOze(Kyu-Chul Shin, 2007), UCC과제(이현정, 정동빈, 2008), CMC(정동빈, 김혜경, 2009),

MMORPG(위정현, 원은석, 정동빈, 2009)를 활용해서 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포함하여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상당히 많은 부분(25%)을 차지하고 있다.

기능별 교수법은 연구자가 수업설계 시 영어의 특정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수업을 통해 특정 언어기능이 향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읽기수업으로 다독 프로그램 연구(이화자, 김미정, 2007), 대화일지(dialogue journal)를 사용한 읽기수업 (Minjong Song, 2007b, 2008), 추론기능지도를 통한 독해지도(김정렬, 신지연, 2008), 웹을 활용한 읽기수업(이명관, 2006)을 포함하여 6편의 논문이 이에 속한다. 이 중 이명관(2006)논문은 웹을 활용한 연구이지만 전반적인 교수법 중 인터넷 활용 분류에 넣지 않고 읽기교수법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논문이 특히 독해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교수법을 소개하는 논문으로 Daesung Chung(2001)과 전윤실, 김성혜(2007)의 억양학습에 관한 논문, 두 편에 그치고 있다. 메모하기 전략이 듣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김동규(2008)은 학습자가 듣기를 하는 동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학습전략 논문에 포함시키고 듣기교수법 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듣기 말하기 논문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은 영어교육 학회지 전체적으로 듣기 말하기 논문이 많이 게재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40년간 영어교육학회지에 게재된 듣기 관련된 논문의 수(차경환, 2006)와 말하기 논문의 수(박종원, 2006)는 각각 60편(4.61%), 48편(3.69%)에 그치고 있는 점과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현대영어교육*에서 특히 부족한 편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쓰기(7.5%)와 어휘(10%), 문법(10%) 교수법에 관한 논문은 거의 비슷한 빈도로 게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어휘학습이 영어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논문이 게재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불과 4편에 그치고 있어 *현대영어교육* 학회지에서는 어휘분야의 논문이 타 분야에 비해 두드러진 현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역시 *영어교육*에 게재된 어휘 관련 연구를 개관한 논문(박준언, 2006)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영어학습에서 어휘학습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아쉬움을 보이는 부분이다.

영어교육의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논문으로는 상호작용과 문맥을 통한 어휘학습(이진숙, 2001), 다독(extensive reading)을 통한 어휘습득(Kyu-Chul Shin, 2003), 연어학습(현태덕, 2007), 탈맥락화(decontextualized) 어휘지도(Jin-Hee Huh, 2009)가 포함된다. 그러나 어휘학습전략 사용을 비교한 논문(박경미, 2001)은 학습자가 사용하는 학습방법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교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학습전략 분야에 포함시켰다.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쓰기도를 다루는 논문으로는 과정중심작문과 통제작문을 비교한 논문(Minjong Song, 2007a), 베껴 쓰기와 요약하여 쓰기(박상옥, 이우진, 2009),

작문에서 연결어 지도효과에 관한 논문(Sookyung Cho, 2009)이 있다. 문법지도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영화를 활용해서 암시적인 문법교육이 가능한지를 알아본 연구 (고영진, 2001), 입력강화 처치를 사용한 현재완료형 학습효과 (Jayeon Lim, 2007), 관사(Jongbum Ha, 2009) 그리고 명시적 문법교육의 효과를 다룬 논문(류란, 황선유, 2009)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암시적 문법교육이 명시적 문법교육보다 실험논문의 수업 중에 더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학습자 변인으로 볼 수 있는 학습전략 논문도 다수 게재되었는데(12.5%) 이는 영어교육에서 학습자가 학습에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해서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위에 언급한 어휘학습전략(박경미, 2001), 메모하기 듣기전략(김동규, 2008), 질문노트(최경희, 2004), 문맥사용능력(박경미, 2003)을 모두 학습자 변인으로 분류하여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Seon-Yoo Hwang과 Myung-Kwan Lee(2009)의 논문은 시험경험이 읽기시험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 이 역시 학습자가 읽기성적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화자, 김미정(2007), 김정렬, 신지연(2008), 박상옥, 이유진(2009), 류란, 황선유(2009)는 학습전략 분석을 연구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여 포함하고 있으나 중심주제는 각각 읽기나 쓰기, 문법교수법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라서 학습전략 논문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네 편의 논문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학습전략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전체 실험연구의 22.5%를 차지하게 되어 이 분야가 영어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고 *현대영어교육*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자나 교수자가 교실에서의 상황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구성해 가는 적극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학습의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3. 언어기능별 분류

언어기능별 분류에서는 연구자가 실험연구 설계에서 중점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언어기능에 따라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 분류는 40편의 연구대상 논문을 모두 포함하여 이루어진 분석으로 주제별로 볼 때 교수법에 속하든 학습전략에 속하든 모두 대상논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능별 교수법의 언어기능별 논문 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기능별 교수법에서는 읽기논문이 6편인데 반해 언어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읽기논문이 10편에 이르고 있다. 본래 연구자의 연구설계에서 언급되고 연구결과에서 분석된 언어기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 언어기능별 분류

언어 기능	논문 편수
듣기	7(15.6%)
말하기	4(8.9%)
읽기	13(28.9%)
쓰기	6(13.3%)
문법	4(8.9%)
어휘	7(15.6%)
통합기능	5(11.1%)
합계	45(100%)

분석대상 논문 중 두 가지 언어기능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있어서 언어기능별에 의해 분류하면 총 논문 편수 40편 보다 많은 45편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차미양(2006)의 논문은 교양영어 LAB 강좌를 연구한 논문으로 설문지에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말하기와 듣기의 두 가지 기능을 목표로 한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규철(2001)은 읽기교수법을 연구하는 중에 읽기 능력의 하위변인으로 학습자의 어휘분석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역시 두 가지 기능을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석진이 (2005)도 인터넷영어 수업을 위한 분석이 읽기 능력에 집중되고 있어서 읽기와 쓰기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읽기 기능을 다룬 논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28.9%) 어휘(15.6%), 듣기(15.6%), 쓰기(13.3%), 문법(8.9%) 순서의 빈도를 보였다. 쓰거나 듣기 논문이 주제별 분석에서 분석한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인터넷 매체연구 논문이나 학습책략을 다룬 논문들이 기능별 분류에서 쓰기와 듣기영역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통합기능을 다룬 논문은 전체 실험논문의 1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문은 전체적인 영어능력 점수를 사용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한 경우이므로 통합능력으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iBT 토플시험 전체 한 세트를 활용하여 연구결과를 측정한 장형지(2006)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시험으로 도학업성취도 평가문제를 사용했던 임병빈, 박지민, 강문구(2009)와 토익시험을 사용한 최경희(2004)는 평가항목으로 듣기와 독해문항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 듣기와 독해기능에 포함시켜 분류하였다. 한편 이현정, 정동빈(2008)에서는 네 가지 기능의 영역별 점수가 각각 논문에 나타나 있으나 연구결과에서 개별점수와 이를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고 있어서 통합기능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 4. 연구설계 별 분류

##### 1) 연구 대상자 별 분류

실험논문을 연구 대상자 별로 분류함에 있어서, 표 5 와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으로 분류하였다. 대학원생은 대학생의 분류에 포함시켰으며, 대학생이 아닌 성인은 일반 성인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표 5

연구 대상자 별 분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성인 <sup>1</sup>
논문 편수	2(4.9%)	4(9.8%)	4(9.8%)	29(70.7%)	2(4.9%)

##### (1) 초등학생

표 5 에 의하면, 총 40 편의 실험논문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 편으로 전체 논문의 4.9%에 불과했다. Kyu-Hwa Kim(2008)은 과제 중심의 통합적 기능 접근법(integrated-skills approach)에 의해 초등학생들의 쓰기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나타낸 연구결과를 보여주었고, 초등영어 교육에서 수준별 수업의 효용성을 연구한 윤상미, 한호(2009)의 연구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수준 차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한 결과 실험반의 영어에 대한 흥미도가 비교반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으며 듣기능력 또한 신장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2) 중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4 편(9.8%)이며 이들은 각각 읽기, 쓰기, 어휘학습 및 영어 학업 성취도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화자와 정정옥(2005)의 연구에서는 2 개월 동안 중학생 430 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분반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수준별 수업 이전과 이후의 영어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화자, 김미정(2007)의 연구는 수준별 영어 다독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적용한 사례연구로 이를 토대로 전일제 계발활동에서 다독을

<sup>1</sup>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두 편 중 한 편은 대학생과 교수자가 동시에 연구 대상이어서 두 가지 분류에 모두 포함시켰다.

격려하고 권장하였다. 영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명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려면 언어를 중심으로 영어 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현태덕, 2007)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3) 고등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4 편(9.8%)인데, 이들은 회화능력, 읽기, 학업성취도 향상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교수법에 따라 학습자의 영어 회화능력 향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Daesung Chung(2001)의 경우, 과제중심 교수법(TBLT; task-based language teaching)이 교사중심 교수법(TCLT; teacher-centered language teaching)보다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모든 학습자의 전체적인(holistic) 영어 사용능력을 향상시킨 결과를 보여 주었다. 김정렬, 신지연(2008)은 64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론기능지도가 수능 외국어영역 읽기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임병빈, 박지민, 강문구(2009)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CALL 수업과 교과서를 이용한 전통적 수업을 비교하여 CALL 을 기반으로 한 영어수업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영어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위정현, 원은석, 정동빈(2009)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을 활용한 고등학교 영어교수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 (4) 대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9 편으로 전체 실험 논문의 70.7%를 차지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대부분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자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비롯된 결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실험연구 성격상 연구자가 일정기간 동안 실험연구에 관여하고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생 대상 연구의 치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대학생 대상 논문 중에서 1 학년 또는 대다수가 1 학년인 수업을 선택한 연구가 전체 29 편 중 21 편(72.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영어교과외의 경우 교양영어 또는 대학영어라는 교과목으로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가 많으며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과목이 드물어서 실험연구의 연구 대상자로 자연스럽게 신입생이 채택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 주제에 있어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어휘나 읽기 학습에 관한 주제가 주류를 이루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도 물론 읽기 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없거나 드문 문법 학습과 쓰기 학습에 관한 주제를 다룬 연구가 각각 네 편이 있었다.

### (5) 일반 성인

대상 실험논문 중에서 영어연수를 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집단과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교수자 집단을 대학생이 아닌 일반성인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차미양(2006)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병행수업의 교육적 효율성과 실용성을 조명하였으며, 대학생과 교수자가 동시에 연구 대상이어서 대학생과 일반 성인, 두 가지 분류에 모두 포함시켰다. 맹은경(2007)은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연수를 받는 교사와 동일한 연수자로서 수업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영어 단기 몰입연수 형태를 연수 프로그램에 도입한 연구로, 단기 몰입영어연수는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언어학적 입력이 풍부한 환경과 더불어 사회 언어학적인 입력도 제공하고 (Eyring, 2001; Swain, 1985) 경험적인 학습 환경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영어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초등교사들의 인식과 효과를 조사한 연구이다.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 연수생들이 본 연수를 통하여 영어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고 특히 듣기 기능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2) 수준별

연구 대상자를 수준별로 구분하여 실험하고자 하는 특정 교수법이나 학습전략 등의 효과가 대상자의 영어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11 편으로 전체 실험논문의 27.5%이었다. 사전 검사를 통해 전체 연구대상자를 2~3 개의 수준별로 구분하여 동일한 교수법이나 학습법을 적용하고 사후 검사를 통해 그 효용성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조사한 연구들이다. 수준별 분반에 따른 효용성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박경미(2003)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가 문맥을 사용하여 어휘를 추론하는 능력을 보고자 하였으며, 언어능력수준이 낮은 학습자도 문맥에서 어휘의미를 추론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분반수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이화자, 정정옥(2005)의 연구에서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고 상위집단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다소 효과가 있었으나, 하위집단의 학업성취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법성 판단시험과 학습전략에 미치는 명시적인 문법지도의 효과를 연구한 류란, 황선유(2009)의 연구에서는 하위집단과 상위집단 모두 명시적인 문법지도 후 보다 다양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게 되었고 상위집단의 경우, 문법성 판단시험 점수는 사전과 사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비문법적인 문장을 수정하는 과제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한편, 연구설계상에서 수준별 수업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수준별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분석한 논문을 본다면, 질문노트 활용에 관한 최경희(2004)의 논문과 영어 관사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지도법과

암시적인 지도법을 비교한 Jongbum Ha(2009)의 연구에서도 사후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결과분석을 하였다..

### 3) 연구기간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실험은 짧게는 1 회만 진행되어 몇 분에 끝나는 경우부터 길게는 한 학기나 1 년 이상 계속 실험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대영어교육에 발표된 실험논문의 경우 표 6 에서 보듯이 연구기간이 한 학기 미만인 경우가 45%로 가장 많았다. 어휘실험은 단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영어교육에 실린 실험논문 중에서 1 회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한 논문 세 편 중 두 편이 어휘학습에 관련된 것이었다(박경미, 2003, Jin-Hee Huh, 2009).

표 6  
연구기간에 따른 분류

연구기간	논문 편수(%)
1 회	3(7.5%)
1 학기 미만	18(45%)
1 학기	14(35%)
1 학기 이상~1 년 미만	3(7.5%)
1 년 이상	2(5%)

### 4) 자료수집 유형

연구결과 분석을 위한 자료 형태를 분류한 결과 영어능력평가지, 설문지, 인터뷰, 녹음자료, 관찰, 질문노트, 교사일지, 보고서의 여덟 가지 항목으로 나타났다(표 7). 동일 연구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많아 자료수집 유형별로 분류한 논문의 수는 73 편이었다.

우선 영어능력평가를 위해 사용한 검사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연구자가 설계한 검사지와 표준화된 검사지이다. 사용빈도를 보면 연구자가 구성한 검사지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35.6%) 이는 대부분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지로 간주되고 있으나 연구자의 편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연구 목적에 맞도록 설계된 특정화된 검사지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표준화된 검사지는 객관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으로 이것을 사용한 경우는 모두 11 편(15.1%)으로 토플(장형지, 2006; 정동빈, 김혜경, 2009; Minjong Song, 2007b), 토익(김동규, 2008; 맹은경, 2007; Sungryong Hong, 2006; Seon-Yoo Hwang & Myung-Kwan Lee, 2009; Kyu-Chul Shin,

2003) 그리고 도학력고사(김정렬, 신지연, 2008; 임병민, 박지민, 강문구, 2009; 현대덕, 2007)가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연구결과 해석에 더욱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채택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대덕(2007)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구성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뿐 아니라 표준화된 검사로 언어능력 검사와 도학력검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어능력을 다양하게 평가해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여주려고 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 7

## 자료수집 형태별 분류

자료형태	논문 편수	
영어능력평가	연구자설계	26(35.6%)
	표준화된 시험	11(15.1%)
설문지	24(32.9%)	
인터뷰	4(5.5%)	
녹음자료	1(1.4%)	
관찰	2(2.7%)	
질문노트	1(1.4%)	
교사일지	2(2.7%)	
학생일지, 보고서	2(2.7%)	
합계	73(100%)	

설문지는 조사목적에 따라 다양한데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인 흥미도, 참여도, 자신감, 동기, 태도와 학습방법과 책략, 그리고 영어능력에 대한 자기평가, 상호평가 설문지가 포함된다. 설문지의 조사대상도 주로 학생들이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다(차미양, 2006). 전체 자료 중 설문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2.9%로 연구자가 설계한 영어능력 검사지(35.6%)와 더불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지 분석만으로 행해진 것보다는 설문지와 영어능력 검사지를 모두 사용한 연구가 다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자료를 얻기 위해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진행한 경우로 4 편(5.6%)의 논문에서 이러한 자료를 택하고 있고 관찰은 그보다 낮은 수준(2.8%)을 보이고 있으며 인터뷰와 관찰은 질적 연구(Jiwon Paek, 2007)와 양적 연구(윤상미, 한호, 2008; 이현정, 정동빈, 2008)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형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윤상미, 한호(2008)의 연구에서는 설문지, 자기평가표, 관찰평가, 듣고 말하기 평가지를 사용했으며 이현정,

정동빈(2008)은 정의적 영역의 설문지, 성취도평가, 소감문,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였다.

#### 5) 자료수집 시기

자료수집을 위해 사후검사가 실시된 시기와 회수를 보면, 주로 실험기간이 종료된 후 한번의 사후검사가 실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험 도중에 검사를 실시하여 두 번의 검사결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Sungryong Hong(2006)은 중간과 기말에 각각 토익 시험을 치러서 두 개의 시험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실험 중에 실시한 검사라서 실험 후에 실시하여 처치효과의 유지 보존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지연사후검사와는 구별된다.

네 편(10%)의 연구 논문에서 사후검사 이후에 지연사후검사 혹은 후속검사(follow-up test)를 실시하여 사후검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는 주로 어휘연구 분야에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경미(2001)의 연구에서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아무런 실험처치 없이 일주일만 지나서 지연사후검사를 치른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진숙(2001)은 두 번의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즉 첫 번째 검사를 실험종료 3 일 후에 그리고 두 번째 검사를 2 주 후에 실시하였는데, 두 번째 검사가 목표어휘에 대한 기억보유율을 측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지연사후검사라고 볼 수 있다. 실험종료 후 즉각적인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4 주 후에 지연사후검사를 한 Jin-Hee Huh(2009)의 어휘 학습 연구도 이에 해당된다. 문법연구에서는 현재완료 시제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Jayeon Lim (2007)의 연구가 유일하게 후속사후검사를 실시한 연구이다.

#### 6) 통계분석기법

전반적으로 실험논문은 양적 분석이 우세하나 네 편의 논문은 질적 분석을 사용하고, 한 편의 논문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박상옥, 이유진(2009), Bok-ja Cho(2005), Heejae Shin(2007), Jiwon Paek(2007)은 질적 분석을 포함하고 Bok-Myung Chang(2007)은 질적, 양적 분석을 둘 다 포함하고 있는 논문이다. 1980 년대 초기까지는 양적인 실험방법론이 L2 교수학습법에 선호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이후 연구방법론이 변화되어 양적인 방법론에 더하여 질적인 방법론이 대두되어 좀 더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박경자, 1997)을 감안해 볼 때 현대영어교육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여겨진다.

4 편의 실험논문을 제외하고 실험논문에서 연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결과분석도구를 분류한 결과(표 9)를 보면 두 가지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용된 통계방식은 41 가지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진숙(2001)은 정답인 어휘 개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였고 전윤실, 김성혜(2007)의 연구에서도 원어민 화자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까지 억양이 근접한지를 백분율로 나타냈다. 기술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계도구인 빈도분석은 입력된 데이터들이 도수분포표(frequency table) 상에서 어떠한 분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빈도분석은 10 편의 논문에 이용되어 24.4%의 사용을 보이고 있다. Sungryong Hong(2006), 차미양(2006), 장형지(2006), Bok-Myung Chang(2007), 맹은경(2007), 이화자, 김미정(2007)의 설문지 분석에서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8 에 의하면 19 편의 연구에서 t-검정이 사용되어 가장 많은 46.3%를 차지한다. t-검정 결과 두 집단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이것은 단순한 표본오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 집단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t-검정은 이러한 차이가 실험집단에 행해진 처치로 인한 효과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통계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자주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t-검정을 사용한 논문으로는 이명관(2006), 현대덕(2007), Jayeon Lim(2007), 김정렬, 신지연(2008) 등이 있으며 특히 2007 년 이후 발표된 논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평균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비교한 논문은 박경미(2003)의 연구 한 편으로 초급반과 중급반의 의미추론능력을 평균으로 비교하고 있다.

표 8

## 통계분석기법 별 분류

통계분석 기법	논문 편수
백분율	10(24.4%)
평균	1(2.44%)
t-검정	19(46.3%)
피어슨 상관계수	3(7.32%)
ANOVA	7(17.1%)
MANOVA	1(2.44%)
합계	41(100%)

집단이 둘 이상인 경우 여러 번의 t-검정을 행하지 않고 한번에 여러 집단간의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계기법인 ANOVA 는 17.1%가 사용되어 t-검정 다음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ANOVA 를 사용하여 결과를 분석한 논문으로는 성별 집단 차이를 분석한 박경미(2001)가 있고, t-검정과 ANOVA 를 함께 사용한 연구로는 현대덕 (2007), 수준별 집단 차이를 보기 위한 Jongbum Ha(2009) 연구가 이에 속한다. MANOVA 는 2 개 이상의 종속변수를 가진 실험연구에서 집단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분석법으로

분석대상 논문 중 한편에서 사용되었는데 Jin-Hee Huh(2009)의 어휘학습에 관한 연구에서 각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관계수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피어슨 상관계수이다(Best & Kahn, 2003). 분석 대상 논문 중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한 것으로는 독해능률지수와 독해능력의 하위변인인 어휘, 속도,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신규철(2001), 메모전략과 듣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김동규(2008), 전체 성적과 관사의 과도 사용 및 관사 삭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Jongbum Ha(2009)의 논문이 이에 속하는데 이 중 Jongbum Ha의 연구는 t-검정, ANOVA, 피어슨 상관계수를 모두 사용한 논문이다.

#### IV. 결론

본 연구는 2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에 걸친 *현대영어교육* 학회지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의미에서 각 호에 게재된 실험논문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 검토하였다. 우선 역사적인 맥락을 검토하기 위해 연도별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2007년을 계기로 학회지는 연간 2회 발행에서 3회로 증편하여 간헐하게 되었고 따라서 각 호당 논문의 수가 8.9편에서 11.8편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에 대한 실험논문의 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20% 안팎의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영어교육의 중요한 연구경향임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별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인터넷 관련 교수법 연구가 빈번하게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 매체가 새롭게 수업에 소개되고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실험연구 설계상 연구자가 원하는 수업을 적용하고 시도하기 적합한 교육환경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평가나 교재에 관련된 실험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나 교재 관련 연구가 영어교육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현대영어교육* 다양한 주제를 총 망라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학회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게재되기를 기대한다.

언어기능별 교수법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분야의 연구가 저조한 편이고 읽기 지도와 학습에 관련된 연구의 수가 약간 앞서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향이다. 기능별 연구분야를 보면 읽기와 읽기의 하위기능에 속하는 어휘 분야가 두드러진 편이나 읽기의 또 다른 하위기능에 속하는 문법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통합적인 능력을 목표로 하는 연구 설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설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대상자는 주로 대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대영어교육*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대학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의 수업에서

실험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된다. 타 수업을 연구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연구와 달리 실험연구는 일정기간 동안 연구자가 처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것 같다.

연구기간별 분석을 한 결과, 한 학기 미만에서 한 학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대학강의의 경우 강좌개설이 한 학기당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연구자의 편의상 다음 학기까지 연결해서 실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듯하여 아쉬움으로 남는다. 연구대상자의 수준별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학습자 수준은 영어교육의 중요한 변수로 교육의 효과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분반이 실험설계에 고려되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료 수집 방법의 경우, 한 가지 방법으로 연구결과를 추론 해석한 경우가 다수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설문지 분석과 추론 통계치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자료를 해석하거나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료의 다각화(data crystallization)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연구결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것(박종원, 2006)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현대영어교육*에 게재된 실험연구 논문들도 체계적이고 정교한 연구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영어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경향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는 1999년부터 10년간 영어교육의 한 학회지인 *현대영어교육*을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연구목적으로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앞으로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다각적인 분석과 해석이 가능해지며 영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고영진. (2001). 영화와 영화대본을 활용한 영어교육. *현대영어교육*, 2(2), 97-118.
- 김동규. (2008). 메모하기 전략이 EFL 대학생들의 영어듣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9(2), 110-126.
- 김정렬, 신지연. (2008). 추론기능지도가 수능외국어 영역읽기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9(1), 188-213.
- 류란, 황선유. (2009). 명시적 문법지도가 문법성 판단시험과 학습전략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10(3), 174-193.
- 맹은경. (2007). 새로운 영어몰입연수 형태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교육*, 8(1), 91-111.
- 박경미. (2001). 대학생의 어휘학습전략사용 비교. *현대영어교육*, 2(2), 171-186.

- 박경미. (2003). 학습자의 문맥사용능력. *현대영어교육*, 4(2), 92-104.
- 박경자. (1997). *언어습득연구방법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도순. (2002).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 박상옥, 이유진. (2009). 영어교육에서 베껴 쓰기와 요약해서 쓰기의 효과 비교: 사례연구. *현대영어교육*, 10(2), 60-86.
- 박종원. (2006). 영어교육 말하기 논문의 40년사의 회고와 전망. *English Teaching*, 61(special issue), 57-72.
- 박준언. (2006). 영어교육에 게재된 영어 어휘 교육 관련 연구 개관. *English Teaching*, 61(special issue), 137-148.
- 석진이. (2005). 인터넷영어 사례분석 연구: 교양영어 수업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6(1), 81-100.
- 신규철. (2001). 정의적 요소를 강조한 영어습득방안. *현대영어교육*, 2(1), 27-41.
- 위정현, 원은석, 정동빈. (2009).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을 활용한 고등학교 영어교수학습의 효과. *현대영어교육*, 10(3), 194-216.
- 윤상미, 한호. (2008). 초등영어 수준별 수업실험연구. *현대영어교육*, 9(1), 237-255.
- 이명관. (2006). 웹을 활용한 영어 읽기수업이 대학생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7(1), 161-181.
- 이진숙. (2001). 영어어휘습득의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 *현대영어교육*, 2(2), 201-221.
- 이현정, 정동빈. (2008). UCC과제가 대학생의 영어학습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9(1), 283-306.
- 이화자, 김미정. (2007). 수준별 영어다독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적용 사례연구. *현대영어교육*, 8(1), 151-170.
- 이화자, 정정옥. (2005). 학습태도와 학습성취에 미치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 *현대영어교육*, 6(2), 160-181.
- 임병빈, 박지민, 강문구. (2009). CALL 기반 영어수업이 전문계 고등학생의 영어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10(1), 224-250.
- 장형지. (2006). 대학생을 위한 학습형 영어 몰입프로그램의 실제와 효과. *현대영어교육*, 7(2), 150-168.
- 전윤실, 김성혜. (2007).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억양학습에 관한 연구: 영어 초점의문문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8(3), 366-385.
- 정동빈, 김혜경. (2009).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한 읽기 전·후 토론활동이 대학생의 독해학습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10(1), 251-283.
- 차경환. (2006). 영어교육 학술지 듣기논문의 학문적 변천 연구. *English Teaching*, 61(special issue), 31-56.
- 차미양. (2006).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의 대학영어강좌의 적용에 관한 사례연구.

- 현대영어교육, 7(1), 182-205.
- 최경희. (2004). 교사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질문노트 활용. *현대영어교육*, 5(1), 184-205.
- 현태덕. (2007). 연어학습이 영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8(1), 191-209.
- Best, J., & Kahn, J. (2003). *Research in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 Chang, Bok-Myung. (2007). Creating an innovative model for distance learning in EFL context. *Modern English Education*, 8(1), 3-23.
- Cho, Bok-ja. (2005). Usefulness and enjoyment of simulation activities for tourism major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6(1), 3-17.
- Cho, Sookyung. (2009). Pattern of sentence connectors and the effect of instruction on ESL learners' writing. *Modern English Education*, 10(2), 1-22.
- Chung, Daesung. (200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ral communication ability. *Modern English Education*, 2(2), 22-44.
- Eyring, J. (2001). Experiential and negotiated language learning.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pp. 333-344). Boston, Mass: Heinle & Heinle.
- Gall, M., Borg, W., & Gall, J. (1996). *Educational research*. White Plains, NY: Longman.
- Ha, Jongbum. (2009). Interlanguage development of English articles through textual enhancement. *Modern English Education*, 10(1), 1-19.
- Harmer, J. (200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Essex: Person Education.
- Hong, Sungryong. (2006). The effects of cyber English with the contents of anim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7(1), 101-116.
- Huh, Jin-Hee. (2009). The effects of retrieving words in decontextualized vocabulary instruc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0(3), 17-41.
- Hwang, Seon-Yoo & Lee, Myung-Kwan. (2009). Does test taking experience make a difference? *Modern English Education*, 10(2), 23-43.
- Kim, Kyu-Hwa. (2008). Effects of the integrated-skill approach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riting performance. *Modern English Education*, 9(1), 52-72.
- Lim, Jayeon. (2007). Input enhancement in the EFL learning of present perfect and the lexical aspect. *Modern English Education*, 8(3), 38-60.
- Paek, Jiwon. (2007). Korean graduate students' technology use and language interaction in an American university. *Modern English Education*, 8(3), 171-196.
- Richard-Amato, P. (2003). *Making it happen*.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 Richards, J., & Rogers, T. (1986). *Approach and method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n, Heejae. (2007). Students Attitudes on SchMOOze in English learning: A case study. *Modern English Education*, 8(1), 38-55.

- Shin, Kyu-Chul. (2003).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extensive reading in EFL class. *Modern English Education*, 4(2), 3-16.
- Song, Minjong. (2007a). A promising practice for improving writing quality and decreasing writing apprehension of Korean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8(2), 113-135.
- Song, Minjong. (2007b). Teaching reading with an interactive approach: Using dialogue journal as a practice *Modern English Education*, 8(3), 220-242.
- Song, Minjong. (2008). A dialogue journal study with Korean college freshmen. *Modern English Education*, 9(1), 168-187.
- Swain, M.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235-253). Rowley, MA: Newbury.

류란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  
300-831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226-2  
Tel: (042)629-6498/ H.P.:010-2050-9743  
Email: ranuran@hanmail.net

황선유

우송대학교 외식조리유학과  
300-718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7-2  
Tel: (042)629-6592/ H.P.:010-2251-2823  
Email: syoohw@hanmail.net

Received 7 June 2010

Revised 3 August 2010

Accepted 11 August 2010